**비를 기원하는 습속**

2천 년이 넘도록 벼농사를 해온 기쿠치 평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에 대한 기원이 정신 생활의 중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비를 기원하는 의식을 많이 치렀으며, 그중 몇 가지는 지금도 기쿠치시에서 열리고 있다. 그중 두 가지가 ‘가와마쓰리’와 ‘아마고이타이코’로서 한여름 전, 현재는 7월 20일을 전후하여 매년 같은 날에 열리고 있다.

가와마쓰리는 기쿠치시 중심부의 남쪽에 있는 스미요시히요시 신사 근처의 고시가와 강 강가에서 열리며, 수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장난을 좋아하는 갓파라는 요괴를 퇴치하기 위한 의식이다. 갓파가 좋아한다는 오이와 가지 등의 여름 채소를 신사의 제사에 사용하는 신장대에 매달고 강변에 놓아두어 갓파에게 ‘먹인다’.

가와마쓰리에 이어 스미요시히요시 신사 경내에서 열리는 아마고이타이코는 참가자가 커다란 큰북을 쳐서 천둥 소리를 흉내내는 행사다. 이는 중세의 영주가 가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 큰북을 쳤는데 그 노력을 인정한 하늘의 신들이 비를 내려주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